

사회적 농업: 결론 및 시사점 *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서론

사회적 농업의 핵심 가치는 관계와 소통 및 교감이라 할 수 있다. 농업활동은 다름이 없고 또한 그 결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같으나,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위해 농업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창출되는 서비스가 다르게 된다. 사회적 농업이 창출하는 교육과 훈련, 고용, 치유, 사회적 통합,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는 농업 이외의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따라서 사회적 농업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창출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농업이 중요하고 많은 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 내재된 가치와 혁신적 요소 때문이다. 즉 사회적 농업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수요자(서비스 사용자와 보건 당국 및 정부)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대안이다. 시장의 가치매김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재를 사회에 공급함으로써 사회적·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한다. 혁신적인 접근방식으로서 사회적 농업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원이 풀뿌리 가족농에 있으면서 새로운 농업체계를 만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를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수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 (songsoo@korea.ac.kr).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세계농업』이 다루어 온 사회적 농업에 관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한국의 처지에서 그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다루려고 한다. 제2장은 사회적 농업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제3장은 유럽과 일본의 사례와 특징을 요약한다. 제4장은 한국의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의 미래를 생각해본다. 끝으로, 제5장은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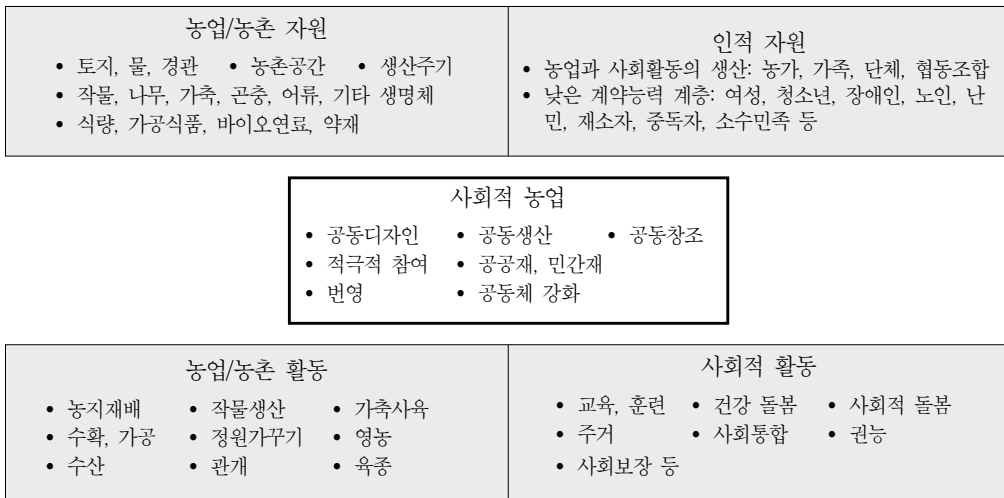
2. 사회적 농업의 정의와 이론 및 핵심가치

2.1. 정의와 목표

사회적 농업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다양한 특성과 역할아래 발전해 왔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창출하는 활동이므로 이를 공식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임송수, 임지은 2017). 지금까지 수많은 정의들이 제시되었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농업은 농촌 및 농촌 근교에서 작물이나 가축 등 농업자원을 사용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재활과 치료 및 치유, 직장, 평생교육, 사회통합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COST 2010; EESC 2012).

즉 사회적 농업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또는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를 농업 및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농장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통해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

그림 1. 사회적 농업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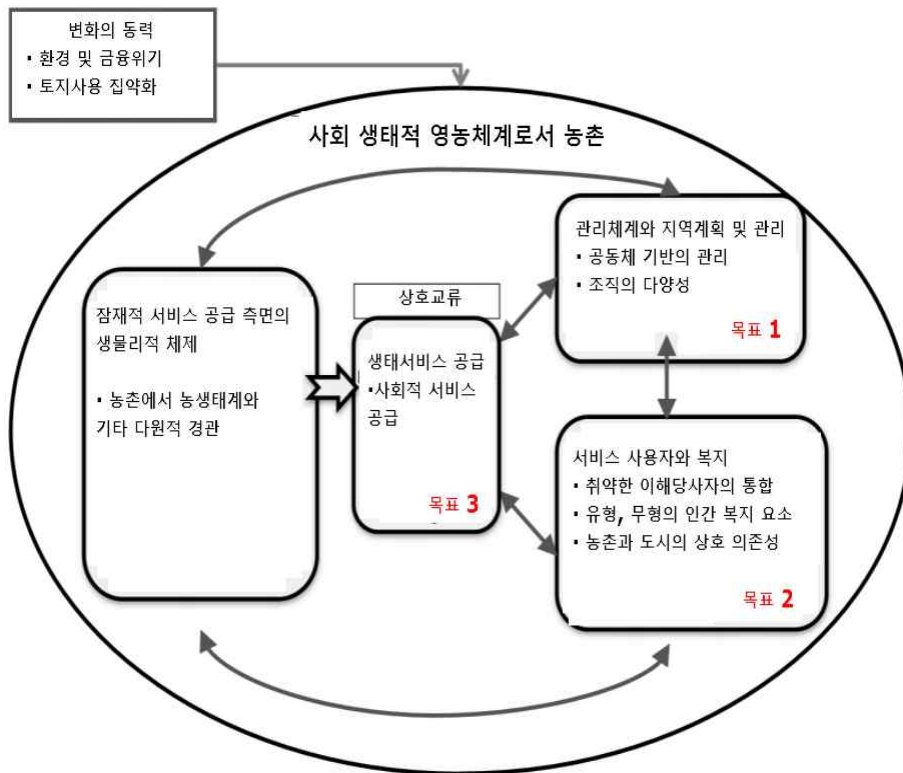


자료: Cofini(2014).

림 1>은 사회적 농업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① 농업과 농촌의 자원, ② 인적 자원, ③ 농업과 농촌 활동, ④ 사회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세부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은 사회적 농업의 실천이 사회 생태적 체계 아래 중요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을 도식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목표들은, ① 지역 공동체와 비공식 조직 기반의 관리, ② 대상으로 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복지, ③ 농업 생태계와 인간의 복지 사이에 명확한 연계로 설정될 수 있다.

그림 2. 사회 생태적 체계아래 사회적 농업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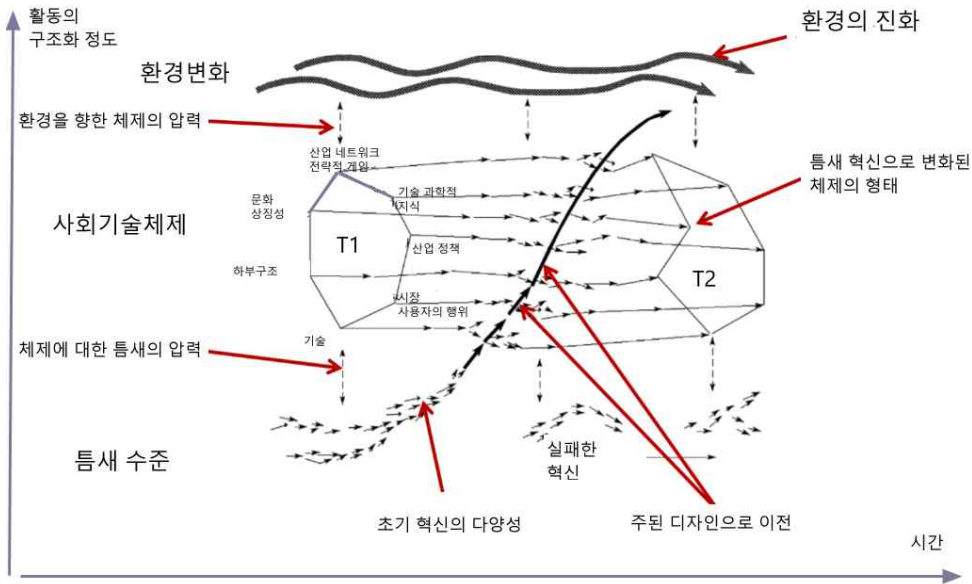
자료: Garcia-Llorente et al.(2016).

2.2. 이론

사회적 농업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이론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전환이론(transition theory), 곧 다층적 관점((multi-level perspective)이다(Hassink et al. 2013).

다층적 관점은, ① 미시수준에서 틈새(niche), ② 중간수준에서 사회·기술체제(socio-technical regime), ③ 거시수준에서 사회·경제·물리적 환경(landscape) 등 그 활동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된다<그림 3 참조>.

그림 3. 다층적 관점에서 사회·기술체제의 전환



자료: Geels(2004); 송위진(2013).

틈새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는 부화 공간과 같은 곳으로 경험을 통한 연구와 배움이 이뤄지며,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연결망을 지원하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한다. 거시수준에서 환경의 변화와 주류 시장의 새로운 기조가 기존체제에 압력을 행사할 때 틈새 혁신이 촉발되는 것이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적 변화와 기업이 정신(entrepreneurship)에 의해 자극을 받은, 헌신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혁신가들에 의해 사회적 농업이 출발할 수 있었다. 이들은 농업부문과 보건복지부문(특히, 돌봄 서비스) 사이의 틈새를 공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uist 2016).

사회·기술체제는 기존의 지배적인 제도와 하부구조에 내포되어 있는 과정, 기술, 문화 등 혁신과 관련된 활동을 규율하는 힘으로, ① 규정, ② 사회적 연계망, ③ 인위적 가공물 및 하부구조 등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형의 일환인 사회적 농업은 정부에 의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새로운 조직들이 형성되었으며, 농가와 이러한 조직간 지식 교환을 위한 하부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또한 사회적 농업이 발전하면서 금융체제와 법체제도 갖춰져서 많은 단체들이 사회적 농가와 협력에 관심을 표방하게 되었다.

사회·기술적 환경은 역사적 사건들을 담은 채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사회추세를 말한다. 혁신 주체 간 교류할 수 있는 외부 구조나 틀을 형성하여 기존 체제나 방식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혁신의 기회를 창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관심, 식품안전, 동물복지, 금융 불안, 사회참여에 관한 보건복지부문의 관심 등이 사회적 농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외부 환경으로 작동하였다.

결국 전환이론 아래 사회적 농업은 지속가능 농업이란 환경이 제시한 기회 공간에서 사회적 농가들이 혁신 주체로서 효과적으로 활동하여 기존의 전통적 사회·기술체제(그림에서 T1의 유형)를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기술체제(T2의 유형)로 전환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¹⁾

2.3. 핵심가치

사회적 농업이 요양센터나 보호센터와 같은 다른 사회적 서비스 공급자와 차별된 두드러진 특징은 관계와 소통 및 교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이를 몇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자.

① 농가와 서비스 사용자 간의 소통과 유대관계

유럽의 사회적 농가 대부분은 소규모 가족농이다. 서비스 사용자들은 농업인 및 그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며 농장에서 농업활동에 참여한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탈시설화는 물론이고 배제와 차별 또는 병리화시키는 것이 아닌 참여(participation)와 접근(access)을 보장하는 일이다(신유리 등 2016).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인지나 신체 또는 물질(약물)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나 노인 등 서비스 사용자들이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기 결정과 능동적 참여를 통해 치유 및 사회적 통합에 다가가게 할 수 있다. 가족적인 분위기와 자연적인 환경에서 이뤄지는 공동작업과 협업은 보호 작업장이나 요양원에서보다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더 큰 편안함과 소속감을 줄 수 있다. 만약 사회적 농가가 취약계층 사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1) 이 밖에도 기업가정신이나 사회 이동이론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설명하기도 함(Johnston 2011; Kuratko 2014).

구성원들에게도 공개되고 함께 일하거나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이러한 소통과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히 될 것이다.²⁾

② 서비스 사용자와 농업/농촌 자원과 교감

사회 농업은 서비스 사용자들이 흙과 나무, 작물, 가축 등 살아있는 생물체를 돌보고 교감하도록 함으로써 치유와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한다. 이들은 자연에서 다양한 색깔의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흙을 만지며, 가축을 돌보고, 꽃과 풀의 향기를 맡음으로써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고 감각을 키우고 순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많은 사회적 농가들은 유기농업 또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연과 교감은 더욱 촉진될 수 있다.

③ 농가와 농가 및 다른 부문 간 연결망

전환이론의 다층적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이 혁신적인 접근방식으로 표현된 것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해온 농가들끼리 강한 연결망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진전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적 농가들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지역조직이나 단체 및 NGO와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며 생산 및 가공한 농산물을 지역시장에 판매하는 활동에도 이러한 밀접한 연결망은 중요하다. 이후 정책 지원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농가들의 연결망은 정부나 보건당국, 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다른 기관들로 확대되고 있다.

3. 유럽과 일본의 경영과 사례: 종업

『세계농업』은 제195-197호(2016년 11~12월, 2017년 1월)에서 유럽 주요국의 사회적 농업 현황과 정책에 관해 소개하였다. <표 1>은 국가별 사례 농장들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2)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각각 10개의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사회적 농업에 관한 시범사업에는 이른바 오락 서비스-물리적 활동(recreational service)이 포함되었음(SoFAB 2014). 이 프로그램은 공동체 정원 가꾸기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취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같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표 1. 유럽 주요국의 사회농업 사례

국가	농장/사업	분류	내용
이탈리아	치유재활 협동조합 (TRRC)	서비스 내용	보호 작업장, 치유, 재활 공동체의 형태로 농업활동
		서비스 대상	취약계층: 사회적-육체적 장애인
		금융지원	공공부문에 의한 지원이 수입의 85% 차지
		성과	취약계층의 보호와 치유
		기타 특징	자체적 운영, 다른 시설과 연결망은 미흡
	노동통합 협동조합 (RWIC)	서비스 내용	농업활동, 판매와 가공, 농가교육 등
		서비스 대상	취약계층: 사회적-육체적 장애인
		금융지원	공공부문에 의한 지원이 수입의 65% 차지
		성과	취약계층의 소득과 일자리 기회 창출
		기타 특징	자주적 운영, 취약 노동자들의 낮은 생산성
	지역개발 협동조합 (RCLD)	서비스 내용	농촌관광, 유기농산물 판매, 애완동물 매개치료, 교육시설 관리
		서비스 대상	취약계층, 실업자, 청년, 여성
		금융지원	정부가 총 소득의 59% 차지
		성과	사용자들의 직접 혜택과 지역사회의 이득
		기타 특징	전문적이고 다각화, 지역 공동체에 초점
네덜란드	노바팜 (Novafarm)	서비스 내용	일자리 창출, 맞춤형 농업활동 조직
		서비스 대상	중독인
		금융지원	건강복지부 및 지자체 농업부의 지원
		성과	중독인들의 사회화
		기타 특징	지역 농장과 협력체제
	청소년 돌봄 농장	서비스 내용	동물 돌보기, 채소재배, 요리
		서비스 대상	불우한 청소년
		금융지원	정부 청소년부 및 농업부의 지원
		성과	정서적 안정, 농가의 소득 창출
		기타 특징	프로젝트 리더와
	도시 농장	서비스 내용	동물 매개 활동, 자연활동
		서비스 대상	도시민
		금융지원	지자체 지원
		성과	아동 놀이터와 학습공간 제공, 도시농장 방문자과 유대감 형성 노인들 활력,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타 특징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서 도시민 전체로 대상 확대
영국	돌봄 농업	서비스 내용	보건, 사회, 교육과 연계한 농업활동
		서비스 대상	취약계층: 정신장애, 우울증, 학습장애, 자폐, 중독, 보호관찰자

(계속)

국가	농장/사업	분류	내용
영국	돌봄 농업	금융지원	지자체 기금과 서비스 및 교육 보조, 자산 신탁, 기부
		성과	지역경제 이득, 도시 파급효과, 지속가능한 영농, 서비스 사용자의 정서와 건강 증진
		기타 특징	신체활동 정도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사용자, 치유농업, 사업 중심의 경영, 젊은 농업인
일본	원예요법	서비스 내용	치유, 재활, 작물재배 기술과 관리 등 직업훈련
		서비스 대상	취약계층: 지적장애인, 생활곤궁자, 여성, 실업자; 치료 필요자
		금융지원	중앙정부 재정지원사업, 지자체 지원
		성과	치유와 재활, 여가 서비스, 취업 훈련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농업부문의 취약계층 고용 증대, 출소자의 사회복귀
		기타 특징	외국에서 원예요법사 자격을 취득한 운영자, 원예복지 개념의 확산, 법인들의 참여
독일	마이어호프 농장	서비스 내용	일자리 제공, 농업생산 활동
		서비스 대상	장애인, 사회농업 수요자
		금융지원	정부 사회복지 담당기관의 지원
		성과	다양한 경험, 숙련과 즐거움 및 존중감 회복, 책임의식과 소속감 및 유대감 향상, 일자리 제공
		기타 특징	30명 장애인에 일자리 제공, 수익 재투자
	기독교공동체 (마리아 빈, 안토니우스하임)	서비스 내용	일자리와 경험의 장 마련, 기술 및 치료와 연계한 사회보호와 재활시설 제공
		서비스 대상	노인, 노숙인, 이민자
		금융지원	공공보조, 기부
		성과	이민자의 능력 증진, 단순 기술 노동직 창출, 빈곤계층의 사회기여 공간 마련, 치유와 돌봄
		기타 특징	시설에 거주하며 공동작업에 참여, 농업생산을 통한 공동체 지원

자료: 임송수, 김승애(2016); 이윤정(2016); 이혜진(2016); 전영현, 임송수(2016), 안규미(2017).

각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탈리아

이탈리아 사회적 농가들은 농업경제의 위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유기농업이나 지속가능한 가족농 형태의 사회적 농가들은 취약계층의 사회적 통합과 포용에 중점을 둔다. 특히 이민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이 인상적이다. 지역 농산물과 식품에 높은 가치를 매기고 이를 수요하는 소비자와 지역사회의 수요도 사회적 농업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고, 다양한 조합들과

긴밀한 연결망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

②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가는 무엇보다 치유와 돌봄 농업에 주안점을 둔다. 거의 모든 지역에 지역 단위의 치유농장이 있을 만큼 조직화가 되어 있고, 사회적 서비스의 품질인증체제를 도입하여 치유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복지기관과 돌봄농업단체 및 농가 간의 연결망이 잘 발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1995년부터 도입된 통합 건강보험제도(AWBZ)아래 인증된 사회적 농가는 그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 아래 정실질환자, 노인, 문제 청소년 등 개인에게 허용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서비스 사용자가 돌봄 농장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이는 서비스 사용자(서비스 선택권과 품질 높은 서비스 수혜)와 농가(추가 소득), 보건당국(경제적 서비스 공급)에 모두 이익이 되는 성과를 나타낸다.

③ 영국

영국의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기업이나 자선단체의 형태로도 존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보건당국이 서비스 공급자로 개별 농가보다 기업이나 단체의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지위를 갖춘 사회적 농가도 등장하였다. 이는 영국의 사회적 농가들이 주로 농업생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자발적으로 그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가 많다.

④ 일본

일본에는 일반 농가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법인, 기업의 특례자회사,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생활곤궁자 등을 고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치료와 재활 및 교육 서비스 등을 프로그램에 담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 공동으로 의료와 복지를 농업·식품과 연계하는, 이른바 “농복연계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시설과 장비, 매뉴얼 및 전문가를 지원하고 있어 그 성과를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이 밖에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농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청소년과 가난한 사람들의 농업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농가, 고아들에게 농업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시설 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한 민관학

의 다각적인 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도 특징이다.

⑤ 독일

독일의 사회적 농업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형태이다. 둘째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농업활동을 매개로 건강이나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특히 첫 번째 형태와 관련, 독일의 사회적 농업의 주요 공급자는 개별 농가가 아닌 제도권(공공부문) 농가이다. 이는 개별 가족농 중심의 다른 유럽국가들과 차별된 점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대규모 보호 작업장체제아래 농업 및 원예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현재 총 630곳의 보호 작업장 중 농업활동에 중점을 둔 곳은 150여 곳으로 알려져 있다.

4. 사회적 농업의 미래와 과제

유럽에서 사회적 농업은 수많은 혁신적 농가들로부터 태동되었다. 정부나 복지 및 보건당국의 지원이나 협력이 있기 전에 이미 농가 스스로 이러한 서비스를 지역공동체에 제공하면서 발달해 온 것이다. 이는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농가와 서비스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또한 사회적 농업은 관련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계된 연결망 속에서 존재한다. 지역의 자연환경, 전통과 문화, 식품 등을 기반으로 영농활동이 이뤄진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수요와 지지를 뜻하기 때문이다.

아직 사회적 농업이란 용어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의 처지에서 선진국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무엇보다 사회적 농업이 사회적 체제의 형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또한 기꺼이 제공하고자 하는 많은 혁신적인 농가들이 존재해야 한다. 이들은 주로 가족농이고, 유기농이나 지속 가능한 영농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농가들이다.

전환이론 상 틈새로서 이러한 농가들은 스스로 연구과 노력,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다른 농가 및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추세로 인식될 만큼 진전되어야 한다. 취약계층 사람들과 함께 영농하는 것이므로 농업생산만을 통해 수익을 보장받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공공재로서 공급하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농업활동에 기반하여 독립적인 경영과 시장 이익 추구

에 중점을 두는 게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가의 필요조건이라 하겠다.³⁾

둘째, 사회적 농업은 표준화되거나 통일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으나 전문적이어야 한다. 특히 치유나 돌봄 서비스의 경우 복지 및 보건당국의 요건이나 인증을 충족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 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려면 농가에 대한 교육과 훈련, 전문가에 의한 정보와 자문이 제공되어야 한다. 앞에서 혁신적 농가를 언급했듯이, 단순한 농업활동 자체가 “자동으로” 목표한 서비스를 창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사회복지사나 의료 전문가가 설계하고 지도할 사항이더라도 농업인의 마음가짐과 지식 그리고 순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농장 안에서 서비스 사용자들의 안전이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이나 장비 등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안전시설이 갖춰진 복지시설과 달리 농장에는 이러한 맞춤시설이 부재하고 농업인의 관련 안전의식도 미흡할 수 있다.

셋째,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사회적 농업이 하나의 복지체계의 구성요소로 역할하려면 농가와 정부, 복지 및 보건기관, NGO 등의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 농업생산을 전담하는 농업인이 행정과 관리까지 맡기에는 역부족이다.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은 사회적 농가의 단체와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간의 협조로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네덜란드처럼 건강보험제도와 연계하여 개인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면, 또는 개인이 자비로 이러한 서비스를 구매할 용의가 있다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사회적 농가를 찾는, 이른바 탐색비용(search costs)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농가단체나 연합회를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 사용자와 농가 사이의 연결 서비스 제공, 홍보와 안내책자 배포, 웹사이트 구축 등이다.

끝으로, 한국의 처지에 적합한 사회적 농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발전 사례를 참고하는 게 유용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적 농업이 존재해 왔던 유럽이지만, EU는 2006-08년 SoFAR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유럽의 사회적 농업의 우선순위와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해 광범위하게 연구하였다(Di Iacovo and O'Connor 2009). 이에 자극받아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사회적 농업 정도가 낮은 아일

3) 사회적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 별도의 인증이 있어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받는 체계는 아직 미흡하나,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고려할만 함.

랜드와 북아일랜드도 이른바 SoFAB(Social Farming Across Borders)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추진된 SoFAB 프로젝트에는 20개 농가가 참여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또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성인 66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였다. 이들 서비스 사용자들은 모두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었다. 이 시범사업에는 2개 대학(University College Dublin; Queen's University Belfast)의 연구진과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는 센터인 기업(Leitrim Development Company)⁴⁾이 참여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와 복지 및 관련기관과 연결망을 구축하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였다. 이 사업은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2015년에 추가 자금을 지원받아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전통이나 연구가 미흡한 한국의 형편에서 아일랜드의 사례는 주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우리의 농업환경과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는 체제를 구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임송수, 임지은(2017)은 농촌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농업에 우선순위를 두되 도시의 치매노인 등 다른 취약계층까지 포용하는, 이른바 “한국형 사회적 농업”을 제안하였다. 도시와 도시근교에 텃밭이나 농원, 정원, 농업공원, 학교, 산림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장점은 용이한 접근성외에도 소규모 경영의 장점을 살려 사용자 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5. 결론

사회적 농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품질이 높고 효과적인 치유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정부나 건강 및 복지제도와 관련된 기관측면에서 사회적 농업은 비용 효율적인 대안적 서비스 공급원으로서 가치가 있다. 농가의 처지에서 사회적 농업은 다원적 기능의 수혜자들을 목표화하고 그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화 방안이기도 한다. 특히 농업부문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농업은 농가뿐만 아니라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사회적 농업은 전통적인 농업생산이나 활동을 하면서 이름만 바꾼 농업형태를 지칭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표현될 만큼 획기적인

4) (www.ldco.ie).

것이다. 서비스 사용자의 수요가 특별한 만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농장과 농촌에서 창출되어야 하고 그 가치가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본고는 사회적 농업의 핵심가치가 관계와 소통 및 교감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치유하고 돌보는 데 있어 편리하고 좋은 시설과 장비 및 전문가의 지도와 돌봄 서비스는 유효하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회적 농업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자연 경관아래 농업인과 농업인 가족 및 노동자인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며 소통하고, 흙과 작물 및 가축 등 자연(생태계, 생명체)과 교감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사회적 농업이 제도권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인정받고 그 혜택이 많은 취약계층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욱 증진되고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송위진. 2013.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 23권 4호: 4-16.
- 신유리, 김경미, 유동철, 김동기. 2016.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의 의미에 관한 탐색적 고찰.” 장애와 고용 26:125-152.
- 안규미. 2017. 독일의 사회적 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197호 (발간예정).
- 이윤정. 2016.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Care Farming)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195호: 31-47. (<https://goo.gl/xxUSIH>)
- 이혜진. 2016. 영국의 사회적 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196호: 9-25. (<https://goo.gl/iHNwtS>)
- 임송수, 김승애. 2016. 유럽의 사회적 농업 개관과 이탈리아의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195호: 9-30. (<https://goo.gl/xxUSIH>)
- 임송수, 임지은. 2017. 사회적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안분석 제 26호. (<https://goo.gl/9vZfzA>)
- 전영현, 임송수. 2016. 일본의 사회적 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196호: 27-47. (<https://goo.gl/iHNwtS>)
- Buist, Y. 2016. Connect, Priorities and Promote: A Comparative Research into the Development of Care Farming in Different Countries from the Transition Perspective. 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 Center, Internship Report.
- Cofini, F. 2014. Social Farming Practices in Developing Countries: Gender and Other Implications. Master Thesis, Ghent University. (<https://goo.gl/tjHU52>)
- COST. 2010. Green Care: A Conceptual Framework. A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Health Benefits of Green Care, COST 866. (<https://goo.gl/JNCCIL>)
- Di Iacovo, F. and O'Connor, D. (Eds).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Arsia(Agenzia Regionale per lo Sviluppo e l'Innovazione nel settore Agricolo-forestale), Firenze. (<https://goo.gl/38OGEG>)
-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2.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 Social Farming: Green Care and Social and Health Policies.” Brussels, 12 December 2012. (<https://goo.gl/1TONtm>)
- Garcia-Llorente, M., Rossignoli, C., Di Iacovo, F., and Moruzzo, R. 2016. “Social Farming in the Promotion of Social-Ecological Sustainability in Rural and Periurban Areas.” Sustainability 8, 1238.
- Geels, F. 2004. “From 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to Socio-Technical Systems: Insights about Dynamics and Change from Sociology and Institutional Theory.” Research Policy 33(6-7): 897-920.
- Johnston, Hank. 2011. *States and Social Movements*. Polity Press, Cambridge.

Kuratko, D. 2014. *Entrepreneurship: Theory, Process, Practice*. 9th Edition. Cengage/Southwestern Publishers.
Social Farming Across Borders[SoFAB]. 2014. *Social Farming Handbook*. The School of Agriculture
and Food Science, University College Dublin. (<https://goo.gl/4H1t9c>)